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2. Vol. 14, No. 4, 969-990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강 선 희†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개발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내용영역으로 하여, 기존의 자기애 척도에서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연구자가 새로운 문항을 개발해서 131개의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연구 1에서는 CNS의 최종문항을 완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총점 상관 .20 이상, 요인부하량 .30 이상인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5요인, 45문항이 추출되었다. 전체척도와 각 하위요인들은 비교적 높은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보였다. 한편 CN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CNS는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I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CNS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신경증적 경향성, 내향성, 적대감, 우울의 정도가 높았고, 자존감은 낮게 지각하였다. 연구 2의 목적은 CNS의 교차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표본을 달리해서 요인분석한 결과 거의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왔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의 결과도 양호하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1에서 관찰한 CNS의 요인구조가 집단에 걸쳐 안정적이고, 자료를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모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애 척도

강선희는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강 선 희, (420-743) 경기도 부천시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전화 : 032)348-8279 E-mail : happy9878@orgio.net

현대 사회는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자기애적인 성향을 띠게끔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asch(1979/1989)는 현대 미국 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자기애적인 스타일이 현대 생활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애는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개념화되기보다는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은유적으로 쓰여 왔다. 심리학 문헌에서 자기애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898년 H. Ellis에 의해서인데, 그는 "성적인 감정(sexual emotions)이 상실되고 거의 전적으로 자기 찬미에 몰입하는 경향"을 Narcissus-like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이듬해 Nacke가 독일에서 Ellis의 논문을 요약 소개하였고, 이를 보게 된 Freud는 곧 자기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Raskin & Terry, 1988에서 재인용). 이때부터 자기애는 Freud의 임상적 사고에서 중요한 구성개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자기애는 임상장면이나 성격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에 속한다.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DSM-Ⅲ(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심리학 분야에서 자기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자기보고식 검사가 가장 많으며, 이 밖에도 투사적 검사나 관찰자 평정을 통한 도구들이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중에서 경험적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Raskin과 Hall(1979, 1981)의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로서, NPI는 DSM-Ⅲ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와 검사구성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개발된 것이다.

한편 또 다른 부류의 자기보고식 검사들은 MMPI 문항들로부터 개발되었다. Pepper와 Strong (1958)의 자아-과민성 척도(Ego-Sensitivity subscale)와 Serkownek(1975)의 자기애-과민성 척도(Narcissism-Hypersensitivity subscale)는 MMPI의 5번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것이고, Graham, Schroeder와 Lilly (1971)의 민감성-자기애 척도(Sensitivity-Narcissism Scale)는 MMPI의 5번과 0번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것이다. 한편 Ashby, Lee와 Duke(1979)는 이 세 척도와는 다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개발했는데, 이 검사는 자기애자로 진단받은 환자집단과 자기애자가 아닌 통제집단을 감별해주는 MMPI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Morey, Waugh와 Blashfield(1985)는 숙련된 임상가들에게 DSM-Ⅲ의 11개 성격장애별로 특정 성격장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MMPI 문항들을 분류하도록 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한 다음,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Wink와 Gough(1990)는 캘리포니아 심리 검사지(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CPI)와 MMPI로부터 자기애를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합리적으로 선별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한 다음, 문항-총점 상관을 통해 CPI 49개 문항, MMPI 39개 문항의 자기애 척도를 만들었다.

관찰자 평정을 통한 자기애 측정 검사에는, Wink(1992)가 캘리포니아 Q-set(CAQ: Block, 1961)로부터 개발한 세 가지의 자기애 소척도가 있다. 여기에는 외현적 자기애 척도(Willfulness scale), 내현적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ity scale), 그리고 건강한 자기애 척도(Autonomy scale)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사적 검사를 통한 자기애의 측정

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Exner(1969)는 로샤 검사 체점체계에서 자아중심성 지표(Egocentricity Index)를 발전시켰고, Harder(1979)는 초기기억검사, 주제통각검사(TAT), 로샤검사에서 투사적인 자기애 척도의 개념을 보고했다. Harder의 연구에서 세 척도 모두 서로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준거관련 타당도를 보이나,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

자기애가 그 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는 제안은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간에 상호상관이 부족하며, 이들을 요인분석했을 때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된다는 연구 결과(Hendin & Cheek, 1997; Mullins & Kopelman, 1988;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로부터 나왔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ullins와 Kopelman(1988)은 NPI, Margolis와 Thomas(1980)의 자기애 척도(Margolis-Thomas Measure of Narcissism: MT), Ashby 등(1979)의 NPDS, 그리고 Serkownek(1975)의 자기애 척도를 상관 분석했을 때, MT, NPDS, Serkownek(1975)의 자기애 척도는 서로간 .40에서 .44에 이르는 상관을 보였던 반면에, NPI는 이들 세 척도들과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런 결과는 NPI와 나머지 세 척도가 자기애의 서로 다른 차원을 측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Wink (1991)는 Raskin과 Novacek(1989)의 자기애 척도, Morey 등(1985)의 자기애 척도, Wink와 Gough (1990)의 자기애 척도, Ashby 등(1979)의 NPDS, Pepper와 Strong(1958)의 자아-민감성 척도, 그리고 Serkownek(1975)의 자기애-과민성 척도의 6개 척도를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요인을 얻고 각각 '웅대성-과시성(Grandiosity-Exhibitionism)' 및 '취약성-민감성(Vulnerability-Sensitivity)'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Rathvon과 Holmstrom(1996)도 MMPI-2에서 도출된 5개의 자기애 척도와 NPI를 주성분 분석하여 '웅대성(Grandiosity)'과 '소진(Depletion)'의 서로 직교하는 두 요인을 얻어서, Wink(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Hendin과 Cheek(1997) 또한 HSNS와 Ashby 등(1979)의 NPDS, 그리고 Serkownek(1975)의 자기애 척도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 세 척도 모두 NPI와는 거의 0에 가까운 상관을 보임을 밝히고, 이런 결과가 Wink (1991)의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의 구분을 지지해준다고 하였다.

이렇듯 같은 '자기애'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들간에 상호상관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Wink(1991)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자기애가 발현 양상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구분은 경험적 증거뿐만 아니라 Kernberg(1975), Kohut(1977), 그리고 Akhtar와 Thomson(1982)에 의해 이론적으로도 제안된 바 있다.

요인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DSM에서 말하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가 주된 특징이다. 이들은 웅대한 자기지각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요구한다. 이들에게서는 열등감,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의 거대자기 환상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나타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다. 대개 소심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 이렇듯 내현적/외현적 자기애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애'라는 이름으로 같이 불릴 수 있는 것은 두 유형 모두에서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거대자기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자기방종,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측면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심리학적 구성 개념 중 하나이며,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기애적인 성격차원을 밝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기애가 발현 양상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어진다는 것(Wink, 1991, 1992)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타당화되어 쓰이고 있는 측정도구는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I 하나뿐인 실정이며, 현재까지 국내에 발표된 자기애 관련 논문도 대부분 NPI를 사용한 연구들이다(김계령, 1997; 김윤주, 1991; 김은영, 1996; 김지연, 1998; 박정민, 1998; 정남운, 2001b; 한수정, 1999). 이런 현실은 자기애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개발해서 그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개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를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척도가 구성타당도를 가지는 지를 보고자 한다. 둘째, 개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새로운 척도가 수렴타당도를 가지는 지를 보고자 한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우울, 자존감, 그리고 적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인 성격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내현적 자기애는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우울 및 적대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외향성 및 자존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외현적 자기애를 함께 측정하여 두 가지 유형의 자기애가 이러한 변인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표본을 달리하여 개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교차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방 법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내용영역의 정의

내현적 자기애의 내용영역으로는 Akhtar와 Thomson (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였다(표 1). Akhtar와 Thomson (1982)은 자기애가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 및 이상, 사랑과 성, 인지양식의 여섯 가지 영역에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이를 외현적인 것과 내현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영역 중 자기개념,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적응의 세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며, 내현적/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특징으로서 자기중심적이고, 거대자기 환상과 특권의식을 가지며,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특성을 포함시켰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자의 과민하고 취약한 자기개념적 특성으로 인해 내현적 자기애자만이 가지게 되는 특징으로서 내

표 1.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Akhtar와 Thomson, 1982)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고양된 자기존중; 거만한 웅대성; 부, 권력, 미, 영민함에 대한 환상들; 특권의식;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	지나친 민감성; 열등감, 무가치감, 취약함;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대인관계	깊이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 종종 '화려한 고립'으로 철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 칭찬에 대한 강한 갈망
사회적 적응	사회적 성공; 거짓 승화; 강한 야망	만성적인 지루함,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
윤리와 규범 및 이상	도덕적, 사회정치적, 심미적 문제들에 대한 열성	진실된 관여가 부족; 타락하기 쉬운 양심
사랑과 성	유혹적; 문란한 성생활; 성적 자제력의 부족; 자주 사랑에 빠짐	사랑을 지속시키지 못함 ;사랑의 대상을 분리된 별개의 개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장으로 취급 ; 성도착적인 환상이나 이따금 성적일탈을 보임
인지양식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지각; 명확하고 웅변적인 말투; 때때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우월적이고 모호; 논쟁에서 회피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일관된 주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향	사건의 객관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 때때로 기억상에 미묘한 공백이 있음 ;가벼운 학습장해; 자기중심적인 언어사용 ;과도하게 추상적이었다가 과도하게 구체적이기를 반복 ;자존감이 위협당했을 때, 현실의 의미를 변경하는 경향

향적이고, 우울과 불안을 느끼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심한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문항수집 및 개발과정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자기애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척도 중 외국척도에서는 Robbins와 Patton(1985)의 목표 불안정성 척도(Goal Instability Scale), O'Brien(1987) 의 다면적 자기애 검사(The O'Brien Multiphasic Narcissism Inventory), Margolis와 Thomas(1980)의 자기애 측정검사(Margolis-Thomas Measure of Narcissism), 그리고 Millon(1987)의 다축 성격검사지(The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를 참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황순택(1995)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와 Hendin과 Cheek(1997)의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정남운(2001a)이 번안한 것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기존 척도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내용영역 준거에 맞는 문항을 선발하였으며, 기존 척도의 문항들로 나타내어지지 않는 내용준거는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보완하여 131개의 예비문항을 완성하였다.

번안과정

외국척도에서 차용한 총 89개 문항들을 연구자가 1차 번안한 후, 영어문화권에서 5년 간 거주하며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교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대학원생과 학부생 각 20명에게

번역된 문항들의 의미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 결과 25%이상의 평정자에 의해 2점 이하로 평정된 문항들을 연구자가 다시 교정하여, 심리학과 관련이 없는 대학생 25명에게 다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들이 응답자의 80%~92%에 의해 의미가 잘 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것으로 번안작업을 완료하였다

피험자

표본 1: 피험자는 수도권 및 지방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646명(남자: 303명, 여자: 343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1.9세(표준편차 4.95)로 범위는 18세에서 49세까지였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21.7세(표준편차 4.59), 여자의 평균연령은 22.2세(표준편차 5.34) 였다

도구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이하 CNS로 약칭함)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서 131문항이며, 이중 역채점 문항은 모두 17개이다.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여기에는 Ashby 등(1979)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Serkownek(1975)의 자기애-과민성 척도(Narcissism-Hypersensitivity subscale), Pepper와 Strong(1958)의 자아-예민성 척도(Ego-Sensitivity Scale), 그리고 Graham 등(1971)의 민감성-자기애 척도(Sensitivity-Narcissism Scale)가 포함된다. 이들 네 척도의 문항들은 모두 MMPI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들 척도간에는 중복되는 문항이 많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네 척도의 문항들을 모두 합친 2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α)는 .68로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 검사지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이 검사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Ⅲ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준거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 측정도구이다. 강제선택형의 이분법적 검사도구로서 총 54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 후 Raskin과 Terry(1988)는 주성분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하여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b)이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40문항을 3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정남운(2001b)은 단축된 검사가 .85의 내적합치도(α)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이 검사는 Eysenck Personality Scale(Eysenck & Eysenck, 1991)을 이현수(1997)가 표준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및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을 측정하는 단축형 검사(각각 12문항)를 사용하였다. 이현수(1997)는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α)를 정신병적 경향성 .64, 신경증적 경향성 .78, 외향성-내향성 .7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83, 외

향성-내향성에서 .79의 내적합치도(α)를 얻었다 그러나 정신병적 경향성에서는 .53의 낮은 내적 합치도(α)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각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을 검토하여 -.05의 상관을 보이는 1개 문항[1]을 제외하고 다시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내적합치도(α)가 .59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한 문항이 줄어든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는 기존 척도와는 r=.965(p< .01)의 상관을 보였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 축소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이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존감 척도를 원호택과 이훈진(1995)이 번안한 것이다.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내적합치도(α)는 .89로 보고되고 있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이 척도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가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1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4지선다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울증상의 정도에 따라 한 문항에서 0점에서 3점까지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1993)가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내적합치도(α)는 .98이고, 반분신뢰도 계수는 .91로 보고되고 있다.

적대감 척도

이 척도는 임영란과 안창일(1992)이 재표준화된 신판 MMPI 566문항에 기초해서 15개의 내용척도들을 개발하여 타당화한 것 중 하나이며,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합치도(α)는 정상인 집단에서 남녀 모두 .76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1) 취미가 다양한 편입니까? (r=-.05)

절차 및 분석방법

646명의 피험자들에게 CNS, NPI,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적대감 척도, EPQ, BDI, SES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로부터 먼저 CNS의 131문항에 대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총점 상관이 .20이하로 낮게 나온 23개 문항을 제외한 후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CNS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고려하였다. 한편 CNS 최종문항, NPI,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적대감 척도, EPQ, BDI, SES를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CNS의 요인구조

피험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하기 전에, 먼저 CNS의 131개 문항을 대상으로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였다. 여기에서 총점과의 교정된 상관계수가 .20이하인 문항 23개를 삭제했으며, 이후 분석에서는 남은 108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성격상 각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였다. 요인의 수는 누적분산비율과 스크리 도표, 그리고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누적분산비율과 스크리 도표를 봤을 때, 요인의 수는 4개에서 8개까지 가능하였으므로 4개에서 8개

까지 탐색적으로 요인의 수를 지정하였다.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의 수가 6개 이상이면 비슷한 특성을 재는 문항들이 서로 다른 요인들에 속해서 요인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요인의 수는 4개 혹은 5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했을 때는, 요인의 수를 5개로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과민/취약 요인과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이 대체로 하나의 요인으로 같이 묶였다. 해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요인을 가능한 많이 추출하는 것이 설명변량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애의 특성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요인의 수는 5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요인의 수를 5개로 보았을 때, 어느 요인에도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지 못하는 문항이 모두 27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81개 문항만으로 재분석을 하였다. 이후 한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높은 것과 문항-총점 상관이 높게 나오는 것을 최종문항 선정의 통계적 기준으로 삼고,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반복하여 각 요인별 9개 문항씩 총 45개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회전하지 않은 5개 요인의 고유치는 크기 순서대로 각각 9.1, 4.3, 2.9, 2.2, 1.6이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약 44.54%를 설명하였다. 사각회전을 한 이후의 각 요인의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5개 요인의 고유치의 총합은 15.22였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약 37.77%를 설명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들이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에 비교적 높은 정적 요인부 하량을 가졌으며, 회전한 후의 요인행렬에서는 -.221이 가장 큰 부적 요인부하량으로,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부적인 요인부하량이 전혀 없거나 아주 미미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요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별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은 목표설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만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다. 이것은 Kohut(1971)의 두 축 이론 중 한 축인 이상화(Idealization) 축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소진감을 느끼며, 장기간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Robbins와 Patton(1985)이 개발한 목표 불안정성 척도는 이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요인 1은 '목표불안정'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내용영역 준거 중 '사회적 적응' 측면을 반영한다. 요인 2에 속한 문항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요인 2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준거 중에서는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칭찬에 대한 강한 갈망'을 반영한다고 보여 진다. 요인 3은 착취적인 대인관계, 특권의식,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반영하는 문항들이므로 '착취/자기중심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런 특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애자는 자신에게 몰입해있고 그런 특성으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면과 타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런 면이 대인관계에서는 착취적인 모습과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요인 4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평가에 예민한 모습과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요인 4는 '과민/취약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준거에서는자기개념 중 '지나친 민감성'과 '열등감, 무가치

표 2. CNS의 요인부하량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FUF
87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833**	.039	-.129	.124	-.133	.645
113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791**	.030	-.007	.007	-.068	.623
88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737**	.024	-.146	.215	.003	.692
61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710**	.012	.048	-.114	.078	.585
48	R)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700**	-.087	-.045	-.035	.063	.530
62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696**	-.030	.178	-.110	.131	.641
126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554**	.021	.026	.087	.167	.631
11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533**	-.048	.168	.061	.075	.566
9	R)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519**	.001	.073	-.061	-.013	.410
97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064	**.817**	.029	-.045	-.068	.286
59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055	**.742**	.036	.001	-.078	.283
96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038	**.629**	.069	-.015	-.055	.260
46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01	**.627**	-.016	.066	.020	.269
124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089	**.604**	-.068	-.025	-.059	.319
122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40	**.371**	.058	-.022	.056	.353
6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67	**.367**	.145	.272	.168	.372
110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079	**.361**	.197	.181	.016	.444
32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96	**.343**	.209	.065	-.006	.450
50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012	-.051	**.656**	-.002	-.039	.229
28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001	.134	**.621**	-.108	-.025	.239
64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025	-.055	**.613**	-.046	-.031	.198
91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014	.060	**.534**	.105	-.099	.265
63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95	.060	**.413**	-.221	.168	.323
129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021	.142	**.388**	.118	-.024	.270

표 2. CNS의 요인부하량 (계속)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FUF
10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007	-.168	**.344**	.196	.082	.238
5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041	.053	**.325**	.129	.096	.265
36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019	.206	**.304**	.211	-.080	.323
95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056	.007	-.019	**.600**	.108	.481
9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019	.123	.157	**.486**	.157	.537
94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076	.178	-.028	**.481**	.282	.483
92	요 며칠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226	-.008	.062	**.471**	.019	.511
9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009	-.013	.162	**.430**	-.081	.270
81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255	.048	-.099	**.409**	.127	.524
68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009	.172	.076	**.375**	.140	.425
6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293	-.033	.041	**.358**	-.005	.461
80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021	.279	-.120	**.351**	.160	.385
54	R)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029	-.055	-.012	-.086	**.609**	.262
4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띠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034	-.149	.048	.006	**.555**	.319
73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067	-.018	-.026	.187	**.490**	.451
7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054	-.171	.059	.037	**.488**	.307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049	.223	-.114	-.040	**.466**	.361
106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061	.141	-.042	.174	**.382**	.443
27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079	.317	-.040	.096	**.376**	.492
107	비판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029	.199	.061	.189	**.367**	.487
33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270	.147	-.031	.086	**.322**	.530
	고유치 (eigenvalue)	4.67	3.48	2.46	2.33	2.28	8.35

주. N=646, R)은 역채점 문항임. FUF=first unrotated factor.
요인1: 목표불안정, 요인2: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요인3: 착취/자기중심성
요인4: 과민/취약성, 요인5: 소심/자신감 부족.

표 3. CNS의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

요인	1	2	3	4	5
1	1.000				
2	.092	1.000			
3	.222	.193	1.000		
4	.227	.350	.250	1.000	
5	.379	.171	.076	.342	1.000

주. 1=목표불안정, 2=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3=착취/자기중심성, 4=과민/취약성.
5=소심/자신감 부족

감, 취약함'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표 3에는 CNS의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이 제시되어 있는데, 요인간 상관행렬에서 부적 상관이 없으며, 서로 다른 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4에는 CNS 전체척도와 하위척도들의 상호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합치도(α)가 제시되어 있다.

CNS와 다른 척도와의 관계

표 5에는 CNS 전체척도와 하위척도들이 NPI 전체척도와 하위척도들 및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 갖는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NS 전체척도는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r=.634, p<.01)을 보였다. CNS의 5개 하위척도들도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 .280에서 .584의 범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발된 CNS가 내현적 자기애의 구성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측정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CNS 전체척도는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NPI 전체척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34). 이것은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검사와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검사간에는 서로 상관이 없거나 미미한 상관만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Emmons, 1987; Wink, 1991; Wink & Gough, 1990). 그러나 CNS 전체척도는 NPI의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과 약하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r=.141, p<.01)을 보였는데, 이는 권력욕구와 특권의식이 내/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CNS의 5개 하위척도와 NPI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CNS의 하위척도 중에서도 특히 내현적 자기애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C1, C4, 그리고 C5는 NPI의 전체척도 및 소

표 4. CNS 전체척도와 하위척도들의 상호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합치도(α)

척 도	1	2	3	4	5	전체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α
1	1.000						9	24.57	7.09	.89
2	.148**	1.000					9	29.71	5.77	.81
3	.261**	.349**	1.000				9	21.14	5.12	.74
4	.380**	.479**	.350**	1.000			9	25.04	6.06	.80
5	.452**	.318**	.164**	.545**	1.000		9	26.04	5.55	.77
전체	.693**	.649**	.590**	.799**	.721**	1.000	45	126.76	20.59	.90

주. N=646. ** p <.01
1=목표불안정, 2=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3=착취/자기중심성, 4=과민/취약성, 5=소심/자신감 부족

표 5. CNS와 NPI, 그리고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의 상관계수

척도	NPI	N1	N2	N3	N4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
CNS	-.034	-.291**	.141**	.076	-.029	.634**
C1	-.264**	-.388**	-.118**	-.108**	-.132**	.392**
C2	.327**	.053	.381**	.346**	.083*	.413**
C3	.273**	.127**	.281**	.189**	.179**	.280**
C4	-.020	-.211**	.126**	.060	-.027	.584**
C5	-.338**	-.490**	-.133**	-.158**	-.146**	.481**
MMPI	-.016	-.216**	.115**	.075	-.029	1.000

주. N=646. C1=목표불안정, C2=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C3=착취/자기중심성. C4=과민/취약성, C5=소심/자신감 부족. N1=리더십/자신감, N2=권력욕구/특권의식. N3=과시/칭찬욕구, N4=우월의식.
* p <.05, ** p <.01

표 6. CNS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

척 도	적대감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내향성	우울	자존감	성별	연령
CNS	.400**	.007	.635**	-.246**	.541**	-.514**	.076	-.246**
1	.243**	.107**	.405**	-.258**	.432**	-.557**	-080*	-.261**
2	.310**	-.155**	.376**	.106**	.211**	-.046	.160**	-.163**
3	.411**	.167**	.334**	.042	.286**	-.192**	-.068	-.170**
4	.320**	-.036	.576**	-.222**	.464**	-.407**	.207**	-.080*
5	.098*	-.086*	.447**	-.522**	.327**	-.409**	.091*	-.096*

주. N=646. 1=목표불안정, 2=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3=착취/자기중심성. 4=과민/취약성, 5=소심/자신감 부족.
* p <.05, ** p <.01

척도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민/취약성 요인인 C4와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인 N2는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r=.126, p<.01)을 보였다. 이것은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가 NPI의 하위요인 중 유일하게 N2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115, p<.01)을 보이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아마도 이것은 권력욕구/특권의식이 내/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특성임을 확인해주는 결과인 듯 하다. 한편 CNS중 내/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특성인 C2와 C3는 NPI 전체척도 및 소척도와 예상대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6에는 CNS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예상했던 바대로, CNS 전체척도는 적대감(r=.400, p<.01), 신경증적 경향성(r=.635, p<.01), 그리고 우울(r=.541, p<.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외향성-내향성(r=-.246, p<.01)과 자존감(r=-.514, p<.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CN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는 자존감을 더 낮게 지각하고 내향적이다. 그리고

적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신경증적인 경향이 있으며 우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CNS의 소척도별 상관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요인인 CNS의 두 번째 요인만은 외향성-내향성(r =.106, p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CNS 전체척도 및 소척도가 정신병적 경향성과 맺는 관계는 소척도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CNS 전체척도(r =.007)와 요인 4(r =-.036)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요인 1(r =.107, p <.01)과 요인 3(r =.167, p <.01)은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요인 2(r =-.155, p <.01)와 요인 5(r =-.086, p <.05)는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CNS가 성별 및 연령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나이가 보다 어린 경우에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이 좀 더 강함을 의미한다. 한편 CNS와 성별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의미하는 바는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이 여자에게 좀 더 많다는 것이고, 부적 상관은 그런 성향이 남자에게 좀 더 많다는 것이다. 결과는 목표불안정 요인은 남자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과민/취약성, 그리고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은 여자와 보다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현적 자기애가 다른 변인들과 맺는 관계를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NPI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7을 보면, NPI 전체척도는 적대감(r =.200, p <.01), 외향성(r =.487, p <.01), 그리고 자존감(r =.319, p <.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정신병적 경향성(r =.025)과 신경증적 경향성(r =-.016), 그리고 우울(r =-.027)과는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런 양상은 NPI의 4개 소척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NPI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는 자존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외향적이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행연구(정남운, 2001b)를 통해 NPI의 하위척도 중에서도 특히 부적응적인 속성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력욕구/특권의식은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적대감과 보다 강한 상관을 보였고, 자존감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r =.091, p <.05) 및 우울(r =.116, p <.01)과는 약하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이 요인이 특히 부적응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CNS와 NPI가 관련 변인들과 갖는 관계는 서로 상이하다. CNS가 신

표 7. NPI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

척 도	적대감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내향성	우울	자존감	성별	연령
NPI	.200**	.025	-.016	.487**	-.027	.319**	-.012	-.028
1	.080*	.052	-.176**	.474**	-.173**	.393**	-.078*	.081*
2	.237**	-.009	.091*	.319**	.116**	.091*	-.032	-.076*
3	.176**	-.046	.051	.387**	-.014	.207**	.122**	-.072
4	.028	.150**	-.003	.147**	.000	.232**	-.124**	-.015

주. N=646. 1=리더십/자신감, 2=권력욕구/특권의식.
3=과시/칭찬욕구, 4=우월의식. * p <.05, ** p <.01

경증적 경향성 및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NPI는 이들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 그리고 CN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내향적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에, NPI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외향적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CNS와 NPI가 적대감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 둘의 공통점이었다. NPI가 적대감과 작거나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은 선행연구(Hart & Joubert, 1996)에서 보여진 바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 역시 적대감의 표현방식이 다를 뿐 적대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Wink, 1995)가 있다.

연구 2 : CNS의 교차타당화

방 법

피험자

표본 2: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21명(남자: 107명, 여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연령은 22.4세(표준편차 5.41)로 범위는 18세에서 55세까지였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23.3세(표준편차 5.43), 여자의 평균연령은 21.9세(표준편차 5.35)였다.

도구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최종문항을 확정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점수 범위는 45~2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절차 및 분석방법

321명의 피험자들에게 CNS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연구 1에서 관찰된 CNS의 요인구조가 새로운 표본에서도 일관성있게 반복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논의

CNS의 요인구조

먼저 연구 1에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별 소속 문항과 요인부하량을 살펴보았다. 연구 1의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10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같은 요인에 속했다. 10번 문항은 연구 1에서 소심/자신감 부족에 속했으나, 연구 2에서는 과민/취약성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인부하량을 살펴봤을 때, 연구 1에서 모든 문항들이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졌던 반면, 연구 2에서는 2개 문항(44번, 46번)이 각각 .250과 .232의 비교적 낮은 요인부하량을 가졌다. 내적합치도(α)를 살펴보면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91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순서대로 .92, .82, .78, .84, .80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 1에서의 내적합치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나온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CNS의 요인구조가 표본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표 8. CNS의 요인별 소속 문항과 요인부하량(표본 2)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 1: 목표불안정 (9 문항)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924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87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857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748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	.721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	.712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	.579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	.56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458
	요인 2: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 문항)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709
2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677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661
13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606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560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526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	.40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401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332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	.857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753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	.746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	.488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	.43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	.396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304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	.250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232

표 8. CNS의 요인별 소속 문항과 요인부하량(표본 2) (계속)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 4: 과민/취약성 (10문항)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62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613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549
40	요 며칠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533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506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	.506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443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410
3	비판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	.371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	.310
	요인 5: 소심/자신감 부족 (8문항)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	.672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	.586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띠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	.58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560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551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523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461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421

주. N=32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에서 관찰한 CNS의 요인구조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본에서 얻은 321명의 CNS 응답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세희(2000)에 의해 바람직한 지수로 추천된 TLI, CFI, 그리고 RMSEA를 중심으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TLI와 CFI의 값은 대략 .90 이상이면, RMSEA의 값은 .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연구 1에서 관찰한 CNS의 요인구조는 자료를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모형의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의 값	.967	.970	.043

종합논의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자기애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NPI(Raskin & Hall, 1979)를 통해 이루어졌으

며,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는 국내에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적절한 측정도구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현실에서 정남운(2001a)은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10문항으로 구성된 Hendin과 Cheek(1997)의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를 타당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HSNS는 문항수가 8개에 불과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복잡하고 풍부한 개념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연구자도 문항의 보충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내현적 자기애의 측정에 MMPI에서 도출된 몇몇 척도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MMPI는 경험적 방법으로 척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항들의 안면타당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면타당도를 가지는 문항들로 구성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척도개발을 위해서 Akhtar와 Thomson (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내용영역으로 하여, 기존의 자기애 측정도구에서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연구자가 새로운 문항을 개발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131개의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그 후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9개 문항씩, 5개 요인으로 구성된 45개의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명명되었으며,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한편 CN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작업을 하였다. 첫 번째는 CNS와 NPI 및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한 것이다. 분석 결과, CNS는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NPI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역시 NPI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발된 척도가 수렴타당도를 가지면서,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CNS와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NPI의 4개 요인 중 하나인 권력욕구/특권의식과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졌는데, 이것은 권력욕구와 특권의식이 내/외현적 자기애가 공유하는 특성임을 반영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CNS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작업은 CNS와 NPI가 각각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우울, 자존감, 그리고 적대감과 갖는 관계를 비교해서 살펴본 것이었다. 분석 결과, CNS는 신경증적 경향성 및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외향성 및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격 특성을 가지며, 자신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양상은 NPI에서는 반대로 나타나서, 두 유형의 자기애가 현상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두 유형의 자기애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다소 상반된 성격 특성에서, 외현적 자기애자보다는 내현적 자기애자가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크고, 따라서 이들을 상담장면에서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유형의 자기애간에는 공통되는 특성도 있었는데, 이것은 적대감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점이다. 내현적/외현적 자기애는 모두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비판이나 비평

에 민감하고 공감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는데,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 자기애와 분노, 혹은 적대감이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 적대감이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McCann & Biaggio, 1989)는 있었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적대감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없었는데 본 연구로부터 이런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표본을 달리하여 CNS의 교차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표본에서 CNS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1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이 연구 1에서와 같은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CNS의 요인구조가 집단에 걸쳐서 비교적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 표본 1에서 관찰한 CNS의 요인구조가 자료를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의 개발로 인해, 앞으로 자기애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데에 있다. CNS가 개발됨으로써 이전에 NPI만으로는 잘 측정되지 않고 간과되기 쉬웠던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성향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들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피검자가 보내는 메시지(예: 현기증을 느껴 본 일이 거의 없다. 뱀을 아주 무서워하지는 않는다)가 피검자가 알지 못하는 참조틀에 의해 재부호화될 우려가 있었다(예: 이 피검자는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성향이 있다). CNS의 경우, 안면타당도를 가진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MMPI에서 도출된 척도들에 비해 의사전달과 검사의 해석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개발을 위해 내용영역으로 사용한 Akhtar와 Thomson(1982)의 여섯 가지 준거 중에서, 윤리와 규범 및 이상, 사랑과 성, 그리고 인지 양식의 세 가지 측면은 자기보고식 질문으로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대인관계의 하위범주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에 해당하는 문항은 예비문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문항에서는 요인부하량이 낮아서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문항의 보충이 이루어진다면 풍부하고 복잡한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을 보다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관련지어 제한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 중 정신병적 경향성의 경우, 낮은 문항-총점 상관을 보이는 1개 문항을 삭제한 후에도 .59의 낮은 신뢰도를 보여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후 타당한 다른 성격척도를 사용하여 내현적 자기애자의 성격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CNS 점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CNS 문항에 신경증적인 경향들을 측정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높은 CNS 점수가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경증적 경향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그 의미가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경향이 높고 낮음을 살펴볼 때, CNS의 총점만을 보지 않고 각 하위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신경증적인 경향성만이 높은 사람과 내현적 자기애자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총점과 함께 CNS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살펴보아서, 신경증적인 경향성인 C4, C5와 함께 자기애의 특성인 C2, C3이 같이 높을 경우를 내현

적 자기애자로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서 사용된 표본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CNS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령, 학력, 직업 등이 다양하게 구성된 표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CNS의 요인구조와 평균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만약 임상집단이 정상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면, CNS가 임상집단을 변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밖에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유용할 것이다. 상담장면에서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내담자가 많은 현실을 볼 때, 이들의 대인관계 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계령 (1997). 자기애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영 (1996). 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연 (1998).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민 (1998).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호택, 이훈진 (1995). 편집증적 경향성,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pp. 277-290).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현수 (1997).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임영란, 안창일 (1992). MMPI 내용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42-64.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젱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Ashby, H. U., Lee, R. R., & Duke, E. H.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MPI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E., & Erbaugh, J. K.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Block, J. (1961).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Exner, J. E. (1969). Rorschach responses as an Index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3,* 324-330.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dder & Stoughton.

Graham, J. R., Schroeder, H. E., & Lilly, R. S. (1971). Factor analysis of Items on the Social Introversion and Masculinity-Femininity Scales of the MMP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367-370.

Harder, D. W. (1979). The assessment of ambitious-narcissistic character style with three projective tests: The early memories, TAT, and Rorscha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 23-32.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Lasch, C.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최경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전은 1979에 출판)

Margolis, H. D., & Thomas, V. (1980). *The measurement of narcissism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behavioral and emotional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Millon, T. (1987).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anual* (3rd ed.).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Systems.

Morey, L. C., Waugh, M. H., & Blashfield, R. K. (1985). MMPI scales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O'Brien, M. L. (1987). Examining the dimensionality of pathological narcissism: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O'Brien Multiphasic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61,* 499-510.

Pepper, L. J., & Strong, P. N. (1958). *Judgmental*

subscales for the Mf scale of the MMPI. Unpublished materials, Hawaii Department of Health, Honolulu, HI.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 66-80.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Rob bins, S. B., & Patton, M. J. (1985). Self-psychology and career development: Construction of the Superiority and Goal Instabilit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1-231.

Serkownek, K. (1975). *Subscales for Scales 5 and 0 of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Wink, P. (1992). Three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Q-se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 51-66.

Wink, P. (1995). Narcissism. In C. G. Costello (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 (pp. 146-172). New York: Wiley.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원 고 접 수 일 : 2002.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 재 결 정 일 : 2002. 12. 3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2. Vol. 14, No. 4, 969-990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Seon-Heui Gang Nam-Woo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vert Narcissism Scale(CNS) and examine its validation. Akhtar and Thomson(1982)'s "Clinical feat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was used as the content domain for the scale development, and 131 items were prepared either by adapting appropriate items from the existing measurement of narcissism or plenishing new items. Study 1 completed the final items of the CNS and examined its reliability and validation. Based on items that showed over .20 item-total correlation and over .30 factor loading, item and factor analysis was tested and resulted in five interrelated factors and 45 items. Cronbach α was .90 in total scale, and between .74 and .89 in each factor. At the same time, to examine the validation of the CNS,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CN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which was known to measure the overt narcissism, the covert narcissism scale derived from MMPI,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the Self-Esteem Scale, the Hostility Scale,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was perform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CNS was not correlated with the NPI: however, the CN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overt narcissism scale derived from MMPI. A person, who scored high in the CNS, showed high degree of neuroticism, introversion, hostility, and depression with carrying low self-esteem. The NPI, however, showed the exactly opposite result except for the hostility. It represented the difference in the char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narcissist. The goal of study 2 was to prove the cross-validation of the CNS. Almost identical factors came out fro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different sampl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the result was satisfactory. Once again, it proved that the CNS was a valid method of measuring covert narcissism.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stand on the fact that more diverse and intensive experimental studies on narcissism became possible by developing the CNS. At the e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Key Words: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narcissism scale